

/ 지역 단신 /

곡성 '공양미 모으기' 3,800만원 성금

곡성군이 헬스적인 군정업무 수행을 위해 '집중근무시간제'와 '금요 프리데이(free day)'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흥군은 업무효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를 '집중근무시간제'로 지정, 이 시간대에는 아이디어 창출과 새로운 시책구상 등 업무성과를 높이고 직무수행 능력 향상에 집중할 방침이다.

집중근무시간제에는 불요불급한 출장이나 결재 등이 금지되고 외부인 면담이나 사적 용무도 제한된다.

군은 또 매주 금요일을 '금요 프리데이'로 정하고 부서 자체적으로 업무 자유토론, 애로점 논의 등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할 예정이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여수해경, 해양환경오염 단속

여수해양경찰서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일간 해양환경 오염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폐기물의 무단 배출행위 ▲해양시설·임해 사업장에서의 오염물질 무단 방출행위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불법행위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 기간 중 육상폐기물 불법 배출행위를 절저히 단속하는 한편 관련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해양오염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올 들어 10월까지 해양환경 저해 사범 93건을 적발해 52건을 형사입건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장성 명품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장

10~12일 상무 세정아울렛 물 직거래장터'가 10~12일 광주시 상무지구 세정아울렛에서 열린다.

장성군(군수 유우석)과 농협장성농산물연합사업단(단장 최익주)이 공동 주최하는 직거래장터에는 '홍길동 사과'·'홍길동 단감'·'명품배' 등 과일류와 채소류·친환경농산물 등 7개 품목 20여가지가 출품된다.

이번 장터에서 연합사업단은 사과·단감·배·토마토 등 과채류를 공동선별해 품질을 보증한 명품민을 시중보다 10~20% 싸게 판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돌려줄 계획이다. 또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5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무농약 힙쌀 500g씩을 사은품으로 증정하고, 시식코너도 운영한다.

/장성=고재빈기자 jbgo@kwangju.co.kr

"업무효율 높은 오전 아이디어·시책 발굴"

고흥군 '집중근무시간제' 도입

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은 자유로운 복장과 상하 간 자유 대화시간을 운영해 혁신적인 발상을 유도하고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사업현장의 불편사항 해소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수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외부인사와 군민의 집중 면담 일은 주 3일(화·수·목) 운영하고, 매달 셋째 주를 '프리워크'로 지정, 국·도비 예산확보와 민자유치 등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대외활동에 전념키로 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집중근무시간제'와 '금요 프리데이'는 군정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1개 월 정도 이를 제도를 운영하면서 문제점 발생시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단체장이 지역현안해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근 각종 행사의 참석 범위와 기준이 될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고흥=대성수기자 dss@

출장·결재·외부인 면담·사적 용무 등 제한

'금요프리데이' 시행·자유토론·애로점 논의



목포해경 305함은 '중국어선 칼라'

서남해안서 나포한 168척 중 82척 달해

목포해양경찰 소속 305함(사진)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중국어선 나포실적을 올리고 있다.

목포에서 300km 이상 떨어진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와 거제도 사이 서해 한국 측 베다적 경제수역(EEZ)

을 24시간 철수같이 지키고 있는 이 함정은 올들어 9일 현재 82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이같은 실적은 목포해경이 올해 나포한 중국어선 168척의 절반에 이를 정도다.

특히 지난 달 15일부터 4일간 흑산면 흥도 서쪽 해상에서 중국선적 270t 선망 오여 719호 등 17척을 나포하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305함이 중국어선 나포에 탁월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405t인데 1천t급 함정보다 높은 엔진 (1만

1천708마력)이 장착돼 시속 60km로 바다를 달릴 수 있고 3~4m의 높은 파도에도 해상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기 때문.

직원 19명과 전경 11명으로 구성된 305 함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현재까지 불법 조업 중국어선 275척에 중국선원 2천873명을

나포했으며 담보금 39억2천700만 원을 부과했다.

김문홍 함장은 "새벽 삶을 에는 듯한 바닷바람과 높은 파도 속에 중국선원들을 제압한 뒤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나포해 압송하는 10~20

시간 동안 긴장을 놓을 수 없다"며 "그러나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 시도 눈을 뗄 수 없다"고 말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완도署, 주택가 자동경보기 500개 설치 호응

완도경찰서(서장 안동준)가 지난달

초 범죄예방을 위해 '창문 열림 자동경보기' 500개를 12개 읍·면 금융기관과 우편지역 주택가에 설치한 후 범죄발생이 현저히 줄어들어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완도경찰에 따르면 금일읍파출소(소장 정한대)의 경우 경보기 설치이후 한 달여 동안 단 1건의 강·절도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등 가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완도경찰은 앞으로 경보기 수치를 늘리고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한대 경찰서장은 "창문열림 자동경보기 설치와 철저한 방범순찰을 병행해 범죄 없는 지역으로 탈바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신안 신청사 압해도 이전 재검토를"

양영모 군의원 "교통문제 해결·경제 회복 우선"

신안군이 추진하는 압해도 신청사 이전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신안군의회 제162회 임시회에서

양영모 의원은 5분 자유발언 통해 "신안군 교통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회복 등 시급한 현안 사업을 해결한 후 신청사

이전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이전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 했다.

양 의원은 "신청사 이전 사업은 추진 시기, 군 재정여건, 사업의 시급성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열악

한 신안군 재정상황에서 단일사업에 3년간 260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또 "올해 신안군 채무액이 488억원에 달한데다 이미 발행한 지방채 180억 원까지 더할 경우 신안군은 빚더미에 앓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08년 완공 예정인 신안군 신청사는 부지 1만2천557평, 연면적 3천 442평에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로, 현재 1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담양 전·현직 군수

선거 고소·고발 취하

5·31 지방선거에서 경쟁을 벌였던 전·현직 기초단체장간 고소·고발 공방전이 양 측의 취하로 5개월 여만에 마무리됐다.

담양군에 따르면 이정섭 군수와 최형

식 전 군수는 지난 7일 지방 선거와 관련해 상대방과 지역신문 등에 취했던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했다.

이 군수와 최 전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대나무 신산업, 생태정책, 투자유치 등 민선 3기 정책에 대한 성과 논쟁, 이에 따른 명예훼손과 상호비방, 지역신문의 보도내용 등을 문제 삼아 양측 모두 15건 안팎의 고소·고발을 제기했다.

/담양=차재희기자 jhwha@